

Vol.31 2010. 3

K I E R

Friday energy letter

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전망

Friday Energy Letter

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전망

2010. 3. 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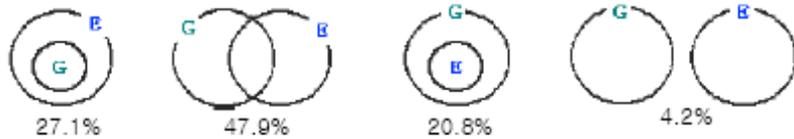
* 출처 :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전망(전문가 설문조사 결과), STEPI, 2010.3.17

□ 개요

-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 아젠다로 부상되고 있으며,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전망 수요조사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수요자측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
- 본 분석은 녹색성장의 개념 및 특성, 실현 시간 범위, 단/중/장기 목표 및 구현 수단 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

□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- 화석에너지 고갈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 에너지 환경문제로 전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집중하고 있으며,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회경제 체제 및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산학연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신율은 51%(102명) 수준
- 녹색성장과 환경보호의 관계
 - “부분적 공통부문을 가진다(47.9%)”항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, “서로 아무 관계없다(4.2)”를 차지



[녹색성장(G)과 환경보호(E)의 관계]

○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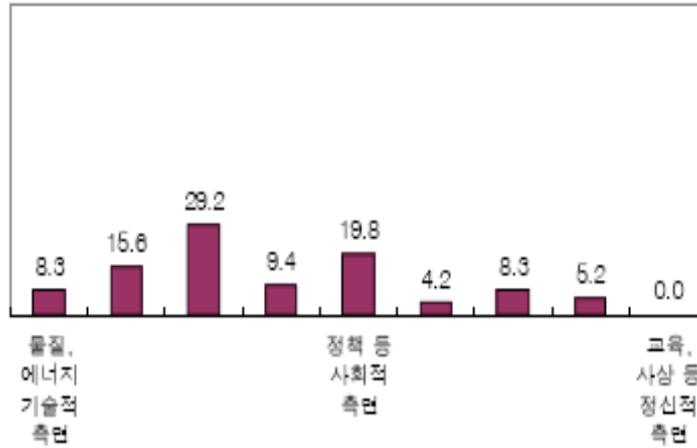
- “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은 공통부문을 가진다”는 응답이 43.8%로 가장 높고, “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을 포함한다”가 39.6%, “녹색성장이 지속 가능발전을 포함한다”가 14.6%, “서로 아무 관계없다”가 2.1% 순으로 분석됨



[녹색성장(G)과 지속가능발전(S)의 관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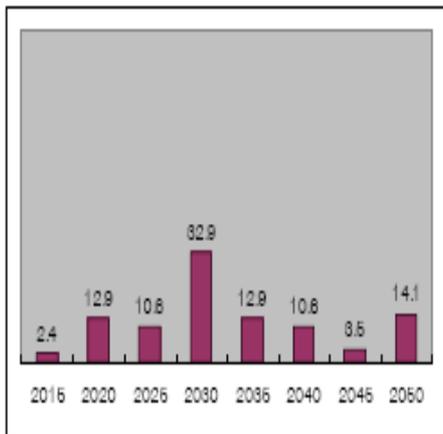
○ 녹색성장의 변화/추동의 근거

- 녹색성장이 기술적 측면(물질, 에너지 등)과 사회적 측면(정책 등)의 중간에 변화의 근거를 둔다(29.2%)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, 그 다음은 사회적 측면에 변화의 근거를 둔다(19.8%)로 나타남
- 녹색성장이 사회적 측면 및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변화의 근거를 두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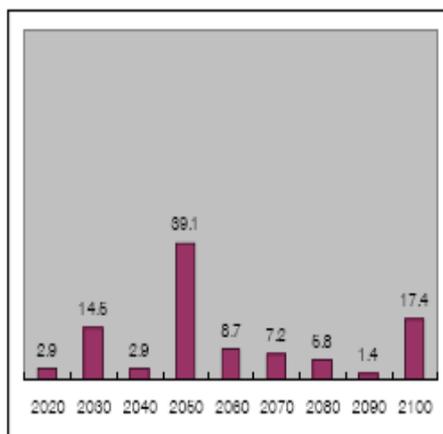


[녹색성장의 변화/추동 근거(단위: %)]

-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시간 범위를 단/중/장기로 구분시, 녹색성장이 장기과제라는 인식이 71.9%를 차지, 중기과제라는 인식은 24%, 단기과제라는 인식이 4.2%를 차지
- 녹색성장 실현은 중장기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됨



[중기과제로 본 경우]



[장기과제로 본 경우]

○ 녹색성장의 단/중/장기별 중점 목표

- 단기중점목표 : 산업 오염 배출 저감이 41.8%로 가장 높으며, 소비패턴 등 생활전반에서 녹색변화인 녹색생활(Green Life)이 25.3% 차지

- 중기 중점목표 : 녹색생활이 59.2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
- 장기 중점목표 :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체의 녹색변화인 “녹색경제”가 73.1%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
- 녹색성장의 단/중/장기별 구현 수단
 - 단기 구현수단 : 정책적 견인이 45.2%로 가장 높은 비율, 그 다음으로는 과학기술혁신이 19.4%를 차지
 - 중기 구현수단 : 정책적 견인인 43.2%를 차지, 그 다음으로는 과학기술혁신이 26.3%를 차지
 - 장기 구현수단 : 시민사회의 변화 및 지원이 49.5%로 가장 많이 차지,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혁신이 31.6%를 차지, 정책적 견인은 3.2%를 낮은 비율을 차지

□ 시사점

-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존의 지속 가능 발전과 중복 혹은 이에 포함되며, 녹색성장은 “사회적 과학기술적 측면”에서 변화 및 추동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
- 녹색성장은 2030년 이후 2050~2100년 사이에 실현되는 중장기 과제로 인식됨
- 정책적 견인과 과학기술 혁신이 녹색성장의 단기 및 중기 구현 수단으로 작용하며,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의 뒷받침 아래 시민사회의 변화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

